



한국고분자학회와 30년

진 정 일

한국고분자학회 제14대 회장
고려대학교 화학과

한국 고분자학회의 연륜은 8년에 걸친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귀국(1974년 8월)한 내 국내 역정과 엮이듯하다. 귀국 후 선배들에게 들은 얘기(폴리머 제1권 1호 P. 51, 김정엽, 「한국 고분자학회」가 창립되기까지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에 의하면 1973년부터 학회창립에 관한 논의를 가졌으나 아직 이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친선모임의 필요성과 신진 귀국 고분자 과학자들을 통한 최신 연구 정보에 접하기 위하여 1974년 12월부터 연구발표회를 갖기로 하여 대략 2개월에 한번씩 세미나 모임을 가졌다. 지금 기억으로는 초기에 김계용, 김성철, 김은영, 김정엽, 노익삼, 안태완, 이동주, 조의환, 최남석, 홍성일, 본인 등이 참석했다.

점차 고분자 과학자들의 수가 늘고 그 활동도 활발해 짐에 따라 대한화학회, 한국화학공학회, 대한섬유학회, 한국고무학회 등에 결방살이(?) 하던 신세를 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하필 본인이 대한화학회 기획간사를 맡고 있던 1976년에 학회창립 얘기가 본격화되었고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대한화학회 측에서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화학공학회가 분리된 지 10여 년 만에 고분자 그룹이 다시 독립해 나간다니 큰 걱정거리가 안될 수가 없었다. 결국 대한화학회 (당시 간사장 : 장세희(고), 총무간사 : 이우영(고), 진보지 편집간사 : 김정엽, 학술지 편집간사 : 이조웅(고))는 그때까지 없었던 「분과회」 설립을 허락하겠다고 고분자 과학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 최종 쟁점은 분과회의 「독립채산제」 인정여부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논쟁거리였으며, 몇몇 선배들의 강경론이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던 터라 고분자학회 창립은 시간문제였다. 스승인 장세희 간사장에게 본인은 매우 죄송스러울 뿐이었다. 더구나 신참인 내가 별로 영향력을 발휘할 처지도 아니었다.

막상 학회가 출범하고 춘·추계 학술발표회의를 갖게 되었으나 연구 여건이 부실했던 당시라 논문발표가 그리 활발치 못하였고, 주로 KAIST (당시 KAIS), KIST,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의존하였다.

초대 편집위원(편집간사 : 조의환, 타 편집위원 : 김정엽, 김성철)으로 학회 일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1977년 3월에 「폴리머」지 제1권 1호를 발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이 잡지는 뉴스, 총설, 학술논문 등이 혼재한 종합 학회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때 기억으로는 조의환 편집간사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안광덕(차기 본 학회 회장) 박사가 학회지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 상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안박사의 노고에 이 기회를 잡아 감사 드리고 싶다.

후에 학회간사로 일할 때는 고 김계용 박사와 왕십리, 화양리 등지에서 소위 이차를 즐겼고, 흠어질 때면 으레 통닭 한 마리씩 싸 주던 김교수의 다감함을 지니고 귀가하곤 하였다. 참으로 학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김박사께 감사 드리고 명복을 비는 바이다. 오장동 학회 사무실 옆의 삶은 닭 집에서 소주 곁들여 늦은 저녁을 대신하던 그 때가 아름다운 영상으로 지나간다. 조의환, 홍성일 선배님에게서 청계천 연탄구이 집에서 배운 소주 맛도 잊지 못할 추억이며, 항상 넉넉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던 김은영 박사님께 끌려다니던 양주집도 어느 집들이었는지 기억은 분명치 않으나 즐거운 대화장소였다.

한번은 변형직, 최삼권(고) 선생님들에게 끌려 명동근처 술집에서 저녁 겸 술을 했는데 이 두 분 특히 최선생님의 주량에 정말 놀란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고려대 선배 교수들의 주량도 대단하다 느꼈지만 최선생님의 주량은 단연 압권(?) 이었으며, 이 점은 그 후에도 여러 번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서울대 화학과 출신으로 고분자학회 초기에 활동이 활발했던 선배들은 별로 눈에 띄이지 않았으며 후에 한만정, 이서봉 박사들이 동참하고 벗인 이후성 교수가 학회일에 동참하여 화학쟁이(?)들의 연대도 형성되어갔다. 이후성 박사에게는 큰 짐을 떠맡겨 매우 죄송스럽게 여긴 사건이 88년 말에 있었다. 안태완 회장 당선자가 나에게 전무이사 책임을 맡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고, 조의환 선배까지 나를 설득하려 노력하였으나 내 개인 사정이 여의치 못해 이후성 교수를 추천했고 마음 약한(?) 이교수는 결국 1989~1990년 전무이사직을 맡아 고생을 하였다. 물론 나를 크게 원망하면서……. 더구나 전무 노릇도 하지 않고 1997년에 본인이 먼저 14대 회장을 하고 고생 많이 한 이교수가 이어 15대 회장을 하게 되어 미안함 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학회 발전상은 다른 글들에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1989년(1989. 6. 26~28) 'IUPAC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lecular

Design of Functional Polymers' (조직위원장 : 안태완, 학술위원장 : 조의환)의 성공적 개최가 기억에 남는다. 88올림픽 개최가 우리나라를 세계에 더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인지 세계 30여 개국에서 500여명이 참여해 명실공히 국제학술대회의 면모를 과시했으며, Proceedings가 Macromol. Symp. (guest editor : 조의환)에 특별호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준비 처음단계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 학회가 IUPAC member가 아니라 IUPAC의 National Adhering Organization(NAO)인 대한화학회를 통해 IUPAC Sponsorship을 얻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결국 그런 수순을 밟았으며, 후 1996년에 대 성황리에 개최한 IUPAC MACRO-Seoul 1996 도 그런 형식절차를 밟았다. 1989 국제 학술대회에는 위스콘신대학의 유혁 교수 등 해외 동포 과학자들의 참여가 많은 자극을 주었으며 한국 과학자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계기도 되었다. 중국 본토 과학자들의 참여도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며, 끝까지 기다리던 H. Mark 교수가 건강문제로 끝내 오지 못한 아쉬움도 함께 하였다. 또 하나 부러웠던 일은 일본으로부터 박사과정 생들이 여럿 참여한 점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외 학술 대회에 참여하기란 거의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1996년 MACRO는 본 학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여 더욱 그 의미가 컸으며, 본 학회의 활동상 및 한국고분자과학자들의 뛰어난 세계에 알리는 커다란 기회가 되었다. 전 세계 42개국에서 1600명 가까이 참여한 대 행사였으며, 지금도 외국인들에게 1996 행사에 관한 칭찬의 말을 듣곤 한다.

본인이 1992년부터 IUPAC Polymer Division(당시는 Macromolecular Division)에 적극 참여하고 있던 터라 IUPAC MACRO-Seoul 1996는 IUPAC 내에 내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준 덕을 입었다. Program 및 초청연사 결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관계로 외국인과의 접촉이 더욱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회장이던 J. Economy와는 개인적 친분까지 있어 IUPAC 내에서 자못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역사가 오늘 내가 IUPAC Polymer Division의 회장(2006~2009)이 되게 도와주었다고 믿으며 학회 및 학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학술대회 중 중국과학자 몇 명(그 때만해도 그들이 한국에서 점심을 사먹기를 부담스러워 했다.)을 삼계탕 집에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이들이 삼계탕을 어쩌나 좋아했는지 매일 삼계탕을 먹었다는 얘기를 후에 듣고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지금도 Wang Fosong 교수는 삼계탕 얘기를 종종 하고 있다.

학회활동을 통해 후배들과 친분을 나눌 기회를 얻은 점은 나에게 크나큰 보람이었다. 때때로 밤 12시가 넘어 걱정이 되어 나를 집에 까지 데려다 준 후배들을 끌어들이 집에서 새벽 2-3시까지 다시 술 파티를 열고는 다음날 하루 종일 기운 못 차린 날이 꽤 있었으며, 안광덕 박사는 그 처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해 성공하고 있는 드문 사례다. 몇 후배(강용수, 김정안, 원중욱 교수 등) 과학자들은 요즘에도 일년에 한두 번씩 찾아와 저녁시간을 함께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꽃을 피운다.

벌써 고분자학회가 세워진 지 30년, 국내 고분자 학계의 엄청 커진 규모와 활발해 진 학술활동을 보면서 30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않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고분자인들의 활동과 결과가 30년을 훨씬 뛰어넘고 있음을 보면서 본 학회의 미래에 더 큰 서광이 있기를 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